

**담당 : 홍보팀 송다혜 사원ㅣ Office : 02)560-4448 ㅣ Mobile : 010-7680-3103 ㅣ E-mail : media@klpga.org**

**배포 일시 : 2025년 8월 6일(수) 17:15 ㅣ 보도 일시 : 2025년 8월 6일(수) 17:15**

**‘제12회 제주삼다수 마스터스’ 대회 공식 기자회견 코멘트**

**◈ 대회개요**

|  |  |  |
| --- | --- | --- |
| 1 | 대 회 명 | 제12회 제주삼다수 마스터스 |
| 2 | 기 간 | 2025년 8월 7일(목) ~ 8월 10일(일) |
| 3 | 장 소 | 사이프러스 골프앤리조트 [북(OUT) / 서(IN) 코스] |
| 4 | 주 최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광동제약 |
| 5 | 주 관 |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
| 6 | 총 상 금 | 10억 원 (우승상금 1억 8천만 원) |
| 7 | 코스길이 | 파72 / 6,586야드 |
| 8 | 참가인원 | 132명 |
| 9 | 주요  출전선수 | 윤이나, 방신실, 박현경, 이동은, 노승희, 고지우, 김민선7, 김민주, 이가영  정윤지, 박혜준, 박보겸, 유현조, 김시현, 송은아, 서지은, 고지원, 성유진  강채연, 지한솔, 박성현, 임진영, 현세린 등 |
| 10 | 중계방송 | SBS골프, 네이버, 다음카카오, U+모바일tv |
| 11 | 방송일정  (생중계) | [1라운드] 11시 ~ 17시  [2라운드] 11시 ~ 17시  [3라운드] 10시 ~ 16시  [최종라운드] 10시 ~ 16시 |

**◈ 공식기자회견 코멘트**

**Q. 이번 대회 소감과 각오?(공통)**

임진영  
어릴 적부터 갤러리로도 많이 참여했고, 꿈나무 레슨도 받으며 성장해온 제주에서 이 대회에 출전하게 돼 정말 기쁘다. 매해 애정을 가지고 있는 대회인 만큼 잘하고 싶은 욕심이 크다. 그 기대를 안고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

고지우  
제주도가 고향이라 올 때마다 설렌다. 이번 주도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윤이나  
제주삼다수 마스터스는 나에게 매우 뜻깊은 대회다. 디펜딩 챔피언 자격으로 처음 출전하고, 올해 KLPGA 첫 출전 대회이기도 해서 설레는 마음이 크다. 팬분들을 만날 생각에 기쁘고, 좋은 모습 보여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박성현  
태국에서 열린 ‘블루캐니언 레이디스 챔피언십’ 대회 이후 오랜만에 KLPGA 대회에 출전한다. 한국 경기에 올 때마다 힘이 나고 설렌다. 예전에 제주도에서 우승한 기억도 있어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 한 달 공백으로 경기력이 걱정되긴 하지만, 즐겁게 경기에 임하겠다.

박현경  
제주도가 고향은 아니지만 제2의 고향처럼 편안하다. 삼다수 대회는 애정이 깊고, 좋은 기억도 많다. 주니어 시절부터 우승 세리머니 때 물을 뿌리는 장면을 보며 언젠가는 나도 그 세리머니를 해보고 싶다고 생각했다. 올해는 그 세리머니를 할 수 있도록 도전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임하겠다.

현세린  
고향에서, 그리고 서브 스폰서인 삼다수와 함께하는 대회라 설렘과 긴장감이 동시에 있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기보다는 즐기면서 플레이하는 데 집중하고 싶다.

**Q. 이번 대회 우승 스코어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는지? 또 잘해야 할 부분은?(공통)**

임진영  
날씨가 좋지 않을 것으로 보여 15언더파 정도 예상한다.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에 휘둘리지 않고 내 플레이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지우  
15언더파 예상한다. 체력적으로 지치지 않고, 바람과 날씨를 잘 극복하는 것이 관건이다.

윤이나  
16언더파 예상한다. 잔 경사가 많은 그린을 잘 읽는 것이 중요하다.

박성현  
바람이 없다는 가정 하에 25~27언더파도 가능하다고 봤다. 그렇지만 오늘처럼 날씨가 변덕스러우면 10~12언더파로 예상한다. 티샷 시 바람이 나무에 막혀 방향을 느끼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고, 윗바람과 아랫바람 차이도 고려해 탄도를 조절해야 한다.

박현경  
날씨가 좋다면 15~17언더파를 예상하지만, 안 좋을 경우 10언더 전후로 예상된다. 바람 방향과 세기를 잘 파악해야 하고, 그린 공략이 어렵기 때문에 퍼트가 승부처일 거 같다.

현세린  
제주 날씨는 기상청도 예측하기 어려울 만큼 변덕스럽다. 상황에 따라 5~15언더까지 모두 가능하다. 4일 동안 꾸준히 잘하는 선수가 우승할 것이라 생각하며, 샷과 퍼트, 계산력 모두 중요하다.

**고지우  
Q. 동생(고지원)이 지난주 우승 경쟁을 펼쳤는데, 어떤 마음으로 지켜봤나?**

고지원 선수가 챔피언조에서 경기하는 모습을 보는데 내 경기보다 더 떨렸다. 마지막까지 버디로 마무리한 걸 보며 너무 잘했다고 칭찬해줬고, 출전 전에도 응원을 많이 해줬다. 동생의 활약이 내게도 큰 동기부여가 되고, 서로 자극받으며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다.

**윤이나**

**Q. 디펜딩 챔피언으로서 이번 대회의 목표는?**

올해 키워드는 '성장'이다. 결과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그보다 배움과 과정에 집중하려고 한다. 디펜딩 챔피언 자격으로 출전하는 만큼 우승 욕심을 완전히 내려놓긴 어렵긴 한데 4일 내내 대회를 하며 마지막에는 우승 경쟁에 나서고 싶다.

**Q. LPGA에서 기대보다 성적이 아쉬운데, 본인이 생각하는 원인은?**

기대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조급해하지 않으려 한다. 경기력을 풀어가는 데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큰 문제라기보다는 여러 요소들이 아직 완전히 맞물리지 않는 느낌이다. 경험이 쌓이면 점차 좋아질 것이라 믿는다.

**박현경**  
**Q. 제주에서 좋은 성적을 냈던 이유는?**

어릴 때부터 제주도 대회에 많이 참가했고, 주니어 시절부터 좋은 성적을 냈다. 그런 긍정적인 기억들이 자연스럽게 프로 데뷔 후에도 좋은 경기력으로 이어졌던 것 같다.

**박성현**

**오랜만에 국내 팬 앞에 나서는데, 마음이 어떤지, 성장통을 겪고 있는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는지?**

한국 경기 올 때마다 너무 좋다. 후배들도 워낙에 다 잘하고 있고 뉴스를 잘 보는 편인데 매주 잘하는 선수들이 이렇게 많다는 걸 느끼고 있다. 성장통을 겪는 후배들도 분명히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